

# 나눔터

## 보관용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펴낸날: 1993년 11월 11일 / 계간발행 /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 전화: 02) 576-7127~8



성폭력위기센터 지킴이 / 명예지킴이- 손숙, 문성근  
사진: 안해룡 (사진작가)

### 차 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	내가 경험한 성 .....	11
여기는 상담실 .....	4	미리보는 상담소 .....	
지상상담 .....	5	나눔터 애깃글/여자가 뭐길래(우애령) .....	12
상담은 이렇게 .....	6	성문화 읽기 .....	13
이렇게 생각한다 .....	7	귀 기울여 봅시다 .....	14
어느 여교수의 죽음(박진숙)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시급하다(최호곤)	
성폭력 사건일지 .....	7	나눔터 알림판 .....	
 특집:위기센터 .....	8	 인사드립니다 .....	15
위기센터 이런 일을 합니다		성폭력위기센터 명예지킴이 손숙	
이제는 말하자/기혼여성의 성(윤양현) .....	10	성폭력위기센터 명예지킴이 문성근	

# 위기센터 개설 준비

각계의 도움과 노력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위기센터는 아직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우선 11월 중에 위기센터에 대한 홍보와 지킴이 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다.  
 연내에 위기센터가 기능을 발휘하는 날까지 이제껏 성원을 아끼지 않았듯이 계속되는 관심을 기대한다.

본 상담소는 연내에 위기센터 실시를 앞두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준비는 1992년 2월에 본 상담소 주관 여성신문사 후원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1년6개월의 모금기간을 거쳐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총액 7천여 만원의 성금이 모아졌고 지난 7월에 본 상담소로 모두 전해졌다.

위기센터의 틀과 내용은 설립위원회와 상담소의 상근자, 각 부서 부장단, 전담요원 등의 실무준비위원회가 정기적 모임을 통해 확립해 왔다. 또한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처치실과 위기센터 업무를 담당할 공간 확보를 위해 양재동으로 확장이전했다.

위기센터 활동을 위해 위기센터 자문위원 모임을 가졌고, 기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위기센터 상담원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부족한 상담원 확보를 위해 제4기 상담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위기센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킴이(상담원과 피해자, 병원, 경찰과의 연계 역할)를 1, 2차에 걸쳐 모집했다. 지킴이 모집을 위해서는 포스터와 전단을 제작하여 각 대학과 직장, 아파트 단지 등으로 배포하고 홍보 하였다. 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명예지킴이에 손숙(본 상담소 홍보출판자문위원, 방송인), 문성근(방송인) 두 선생님을 모셨다.

현재는 위기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 경찰을 섭외중이며, 필요한 내부 설비를 하고 있다.

## 위기센터 진행상황 일지

1992년	2월	성폭력 위기센터 설립을 위한 위원회 결성
	6월 24일	발기인 대회
	11월 5일	기금마련을 위한 만찬 모임
1993년	3월 16일	제3기 상담원 교육 실시
	6월 29 ~ 30일	기금마련 우성세프라인 바자회
	7월 27일	모금액 인수 인계식
	8월 2일 ~ 11월 8일	실무준비위원회 모임 (총 13차)
	9월 2일	지킴이 모집 포스터 사진 촬영
	9월 9, 15, 23일	상담원 재교육
	10월 5일	위기센터 준비를 위한 의료, 법률 자문위원 모임
	10월 11일	상담소 양재동으로 이전
	10월 23일	지킴이 1차 면접
	11월 6일	지킴이 2차 면접

### 제3회 상담원 활동 시작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여성학 강좌 및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제3기 상담원들이 7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8주간 상담실습을 하였다.

실습내용은 상담참관, 기존 상담원들과 일대일 협의 토론, 직접 상담전화 받기, 인성검사, 국립정신병원 사이코드라마 관람, 김현식 산부인과 견학, 경찰청 견학, 성폭력사건 재판참관, 여성연극 '로젤' 관람, 상담사례연구모임 등 이었다.

9월 4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상담원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상담소 회원으로서 각 부서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 김지숙씨 '로젤' 수익금의 일부 위기센터에

연극인이자 본 상담소 홍보출판 자문위원인 김지숙씨가 8월 23일, 25일, 26일 3일간에 걸친 '로젤' 공연 수익금을 위기센터 기금으로 내 놓았다.

### 상담소 내부 바자회 열어

지난 8월 31일 본 상담소에서 내부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상품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우성 세프라인 바자회에서 남은 상품으로 39만여원의 수입이 있었다. 남은 물품은 상담소 내에 비치하고 수시로 판매하고 있다.

### 위기센터 상담원 교육 실시

위기상담을 위한 교육이 지난 9월 9일, 15일, 23일 3회에 걸쳐 함춘여성의원

세미나실에서 실시되었다. 상근자를 비롯한 초기, 1기, 2기, 3기 상담원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성폭력위기센터가 연내에 문을 열게 됨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담원의 위기상담 교육이 필요하게 되어 실시된 것이다.

교육내용은 위기센터의 운영방침과 구성 기능, 위기센터 상담원의 역할과 태도, 의학적 대응방안 경찰연계시 법적대응방안 성폭력 위기상담 지침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위기센터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담원들은 위기센터가 문을 열면 심리상담, 병원연계, 경찰연계 등 피해자를 일선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법의학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지난 10월 8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법의학 세미나에서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성범죄, 의료상 의무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최소장은 상담사례 및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사회의 성폭력실태'를 발표하여 성폭력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부검에 비친 성폭력 실태', '성범죄의 이면상(裏面相)', '성범죄 감정의 전망', '법학적 성행위' 등 법의학적 측면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성폭력을 입증하는 증거채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앞으로 성폭력위기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었다.

### 법률, 의료자문위원 모임 가저

본 상담소는 성폭력위기센터의 실시를 앞두고 지난 10월 5일 법률, 의료자문위원 모임을 가졌다. 8명의 자문위원과 성폭력위기센터 준비요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성폭력위기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 의료진과의 협조체계, 그리고 경찰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모임은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계방안을 구체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본 상담소 양재동으로 이전

본 상담소는 연내에 문을 열게된 성폭력 위기센터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10월 9일 양재동으로 이전했다. 2년여간의 서초동 시대를 마무리 짓고 양재동 시대를 열기 위해 상담소 모든 식구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힘을 모은 날이었다. 위기센터내에 필요한 응급처치실, 면접실, 위기 전화 상담실, 당직실 등의 시설이 모두 갖추어지면 성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위기센터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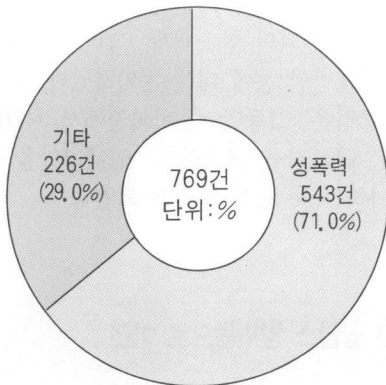
### 제4기 상담원 교육 실시

위기센터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4기 전문상담원 교육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여성학 과정과 성폭력 상담 과정이 각각 5주로 10회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성폭력이나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현재 25명의 주부 및 일반 여성이 교육받고 있으며, 12월 16일 교육이 끝나면 실습교육과정을 거쳐 제4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상은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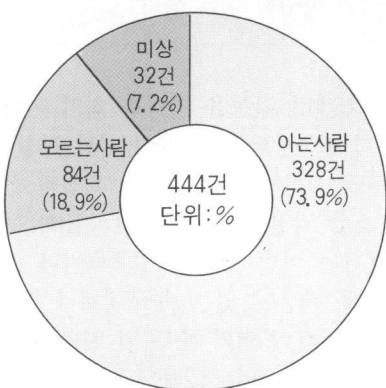


93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본 상담소는 769건의 사례에 대해 총 1,104회의 상담을 하였다. 769건의 상담사례 중에서는 기타상담을 제외한 성폭력 상담이 543건으로 71.0%를 차지하였다. (그림 1)



〈그림 1〉 상담건수

일반 강간과 일반 성추행을 살펴보면 총 444건 중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328건으로 7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특히 아는 사람 중에서 친족이 29.0%를 차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또한 아는 사람 중 기타는 선후배나 동급생, 친구의 아는 사람, 성직자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람들로 나타나 성폭력이 특정인이 특수한 사람에게 당하는 문



〈그림 2〉 일반강간, 일반성추행 중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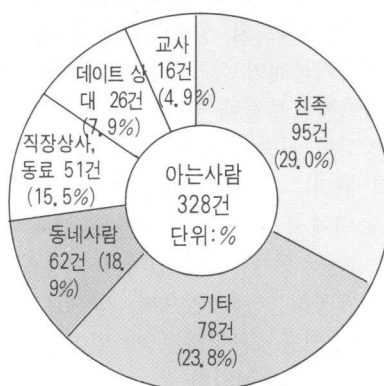
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어린이 성폭력은 지난 5월까지 13세이하 어린이가 피해자가 19.4%를 차지하였고, 8월까지의 25.9%에 달하였다. (그림 4) 이는 그동안 꾸준히 방송, 언론 등에서 어린이성폭력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표 1〉 상담 현황

1993년 1월 ~ 1993년 8월

	유 형	가 해 자		피 해 자				미 상	소 계		
				성인(20~)	청소년(14~19)	어린이(8~13)	유아(0~7)				
성 폭 력	성폭행 358 (66.0%)	일반 강간 330 60.8%	아는 사람 244 44.9%	친족 (13.3%)	아버지·오빠	1	13	14	3	1	32
				친인척		11	16	10	6		40
				동네사람(6.3%)		15	6	7	4	1	34
				데이트상대(4.6%)		23	5			1	25
				직장상사·동료(8.5%)		36	2			2	46
				교사·강사(1.3%)			6	1			7
				기타(11.0%)		44	8	5	3		60
				모르는 사람(11.2%)		37	12	9	2	1	61
	미 상(4.6%)		4	9	3	4	5	25			
	윤 간(5.2%)			12	16				28		
성추행 174 (32.0%)	일반 성 추행 114 21.0%	아는 사람 84 15.5%	친족 (4.2%)	아버지·오빠	1	2	11	2	1	17	
			친인척		4	1		1		6	
			동네사람(5.2%)		3	1	6	18		28	
			데이트상대(0.2%)		1					1	
			직장상사·동료(0.9%)		5					5	
			교사·강사(1.7%)		2	3	4		1	9	
			기타(3.3%)		11		4	2	2	18	
			모르는 사람(4.2%)		8	1	7	4	1	23	
	미 상(1.3%)				1	6		7			
	강간미수(3.7%)		17	1	1		1	20			
언어추행(7.4%)		34	1	2		3	40				
남성피해	11 (2.0%)		4	6	1			11			
계 (건 수)			273(50.3%)	109(20.1%)	86(15.8%)	55(10.1%)	20(3.7%)	543			
기 타 100 %	성문제·순결	(47.3%)	80	22	3	1	1	107			
	인신매매	(1.8%)		2			2	4			
	아내구타	(5.3%)	11				1	12			
	혼인빙자	(4.0%)	8				1	9			
	장난전화	(8.4%)	9	6	1		3	19			
	기 타	(33.2%)	53	19	1	1	2	75			
			161	49	4	2	10	226			
합 계 (건 수)			769								
재 상 답			335								
총 계(횟 수)			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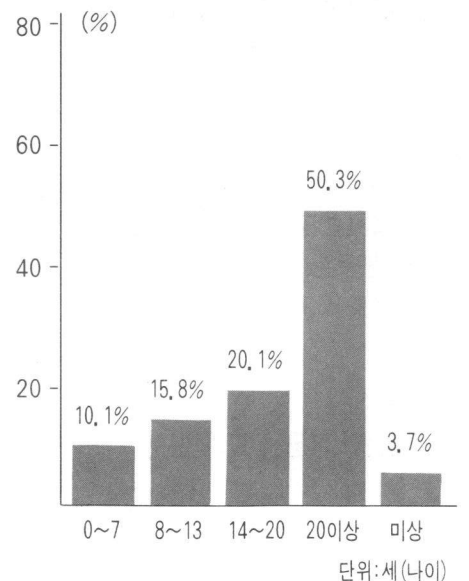


〈그림 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아는사람 분류

여지껏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상담기관을 인정한 후 상담에 의뢰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고 이제 그 실태가 서서히 밝혀지는 친족성폭력과 어린이성폭력은 더이상 눈감고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피해자의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을 때이다.



〈그림 4〉 성폭력 피해자 연령



## 오피스텔 경비원이 입주자 자녀 폭행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 경비원 4명이 입주자의 자녀를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가해자들 4명은 피해어린이를 가스충과 사무용칼로 위협하면서 각각 혹은 함께 오피스텔의 빈 사무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강간과 추행을 했다. 이 사실을 안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지목한 가해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만 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 위해 가스충과 사무용칼로 협박한다는 것 및 40세 전후의 어른들이 합동하여 만 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 등이 경험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해자 2명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소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들의 범행에 해당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보다 가벼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

현재 피해자의 부모들은 불기소 처분된 2명에 대해서, 그리고 기소된 가해자들에 대해서 특가법으로 처벌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항고 중이다.

그 동안 본 상담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이 진정서를 보내는 등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이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 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 60대 할아버지가 19세 소녀 성폭행

15년동안 간질을 앓아 온 19세 소녀가 인삼밭 경비원인 60대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유인 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동안의 증세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한 의사의 권유로 엄마가 그 원인을 알아내 가해자에게 따졌더니 “귀여워서 조금 만진게 무슨 죄냐고” 도리어 뻔뻔스럽게 나와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고소하였다.

## 지상상담

##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합니다.

문

남편과의 사이에 1남 2녀를 둔 40세의 주부입니다. 20년전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20세인 나는 지금의 남편과 약혼한 상태였고 1년후에는 결혼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의 국민학교 동창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후로 그는 협박하며 계속 요구했고 전 좁은 시골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한번 유산도 했습니다.

그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성실하고 충실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6개월전 남편의 고향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말도 안하고 옆에 오지도 않고 멋대로 행동합니다. 지금은 그 남자에게 복수할 방법도 없고 나와 이혼하고 싶다고만 합니다.

전 지금이라도 그 남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남자는 성공해서 공무원으로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한 나는 이렇게 되어야합니까?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서 헤쳐나갈 여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혼자서 20년 가까이 가슴 조이며 애태웠던 일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앞에서 몸부림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한 성폭행을 일생의 수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이혼하자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의 허물과 과거에는 관대하고 부인의 과거에는 매우 엄격합니다. 당신의 얘기로 보아 남편이 가정을 정말 깨뜨리길 원하는 것 같지는 않군요. 이제 남편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십시오. 남편에게도 고통을 소화해 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하게 되었을때 남편을 통해서 당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가해자가 보냈던 편지가 있다면 좋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사실을 가해자의 직장이나 기관에 알리면 가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심 창 교 (제2기 상담원)

# 면접상담시의 유의점

김 미 숙 (제2기 상담원)

면접상담시에는 전화상담과는 달리 내담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바로  
앞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보람 또한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은 전화를 통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면접상담은 내담자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서 전화상담만으로는 상담이 불가능할 때 내담자의 요구나 상담원이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면접상담의 대상자는 피해자가 직접 내담자가 될 경우와 피해자의 주변사람 즉 가족이나 친구가 내담자가 될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때때로 후유증 치료까지 이어지는 지속상담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후자는 주로 법률적인 처리가 끝나면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면접할 때 상담원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상담을 할 때는 시간 조절이 어렵다. 안타까운 사건 내용과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듣다보면 상담이 길어질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처음에 성폭력 상담의 성질과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상담의 목표 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시간적인 제한도 미리 알려준다. 또한 상담 중간중간 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상담자가 정리해 주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둘째, 본 상담소에서 외부지원은 의료, 법률 지원을 주로 한다. 상담이 경찰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지면 상담원은 담당 판사 검사에게 진정서를 보낸다. 재판에 동행하면 비공개 재판 신청, 가해자 가족의 인신 공격에 대비하는 등의 도움을 준다. 또한 병원 동행시에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 채취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외부에서 면접상담을 하는 경우 1회의 상담으로 그칠 것을 대비하여 상담소의 자료를 꼭 가지고 간다. 이 자료는 상담

자의 상담외에 내담자에게 심리적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상담소 시간외의 상담에 관한 문제이다. 본 상담소에서 규정상 법적인 지원이나 의료적인 지원 외에는 상담소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담원의 전화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면접상담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간혹 직장여성이나 상담소의 규정된 시간에 상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몇회의 전화상담으로 지속상담이 될 경우, 내담자와 상담원간의 신뢰감이 형성된 후여서 내담자가 정해진 상담외에 개인적으로 상담해올 때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예외의 경우 상담원은 요일이나 시간을 미리 정해 주어 부담이나 부작용을 줄이도록 한다.

이상이 면접상담할 때 상담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면접상담시에는 전화상담과는 달리 내담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바로 앞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보람 또한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이상은 본 상담소 상담 관련 소모임인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에서는 꾸준한 현장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성폭력 상담이론을 정리해 낼 예정입니다.

# 어느 여교수의 죽음

박진숙 (본 상담소 자문위원, 이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바로 얼마 전 매스컴에 보도된 여교수의 죽음은 그를 직, 간접적으로 알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그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유망한 여성이 남성의 폭력 아래 허망하게 스러져갔다는 사실은 “내 일이 아니니까” 또는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기 좋은 스캔들로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운 여운을 남겨주며,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오랜 옛날 어느 때부터인가 가부장제가 형성, 수립되면서부터 여성의 지위는 날로 격하되어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되었으며 재산품목의 하나가 되었다. 고대 서양에서 여성이 ‘재산’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간략히 살펴 보자.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카투루스라는 시인은 결혼 송가에서, “정조(순결)는 전적으로 네 것이 아니니, 3분의 1은 네 아버지의 것이고, 3분의 1은 네 어머니의 것, 나머지 3분의 1은 네 것이로다. 그러므로 너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사위될 사람에게 팔려는 그들과는 분쟁하지 말지니...”라고 읊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독립된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온갖 폭력을 무방비 상태로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결혼전 여성의 순결은 가문의 명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호자(부모나 친권자)의 허락이 없는 성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로마의 법은 결혼전에 순결을 잃은 딸을 죽여도 처벌되지 않았으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딸을 살해해도 관대하게 넘어갔다. 히브리법에 따르면, 혼전에 약혼자 이외의 남자에게 순결을 잃은 딸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으며, 로마법에는 딸이 아버지나 남자 형제에게 불복종할 경우에는 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게르만족도 결혼 외의 정조 상실은 피해자 여성에게가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해자가 지불해야 했던 벌금은 피해 여성이 ‘가치가 손상된’ 데에 대한 보상금

으로 보호자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만약 여자 쪽에서 동의한 일이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오늘날에는 여성을 더 이상 이와 같이 재산으로 보지는 않게 되었지만, 광고나 대중매체는 꾸준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화는 아직도 여성을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여성을 비인간화할 뿐 아니라 남성 폭력의 대상으로 머물게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 사회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 여성, 가난한 여성, 직업이 없는 여성,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여성, 독신(미혼, 이혼, 별거)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가장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고 한다. 이는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남성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내나 애인을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결혼을 ‘아내구타 면허증’을 딴 것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여성도 남성 폭력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남녀 양성이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이 사회, 정치, 경제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극 활동하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명맥을 유지해 가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사회, 경제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보다 자유롭게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 성폭력 사건일지

### 다음은 93. 8. 1 ~ 93. 9. 30 까지의 성폭력 사건입니다.

시리도록 푸른 가을하늘, 그러나 그 하늘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밑에서는 시린손을 호호불며 도서관에서 나오던 여학생이,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아무지게 하고 있던 주부가, 직장에서 능력껏 일하는 성실한 여성들이,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어린이들까지 성폭력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 사기죄로 구속됐다 풀려난 차지혁, 또 하루사이에 여직원 2명 을 성폭행 - (8/7 한겨레, 동아)
- 서울대에서 교수가 조교재임용을 미끼로 여조교를 성적희롱한 사실이 대자보화되어 논쟁 - (8/26 조선)
- 경관이 한밤중에 가정집에 두차례나 침입해 20대 주부를 성폭행

-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다 붙잡힘 - (9/3 한겨레)
- 30대의 방글라데시인 2명이 10대소녀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꺾어 자신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공시장 관리실에서 성폭행 - (9/6 동아)
- 부산지법은 특수강간혐의를 받고있던 10대소년 5명에게 『강제력 행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영장기각 - (9/19 경향)
- 10대 소녀 성폭행한 방위병 등 6명 붙잡혀 2명은 특수강간혐의로 구속 - (9/19 동아)
- 여자손님의 성폭행에 대한 구원요청을 듣고도 이 사실을 방관한 여관주인이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됨 - (9/21 조선)



# 위기센터 이런 일을 합니다.

위기센터는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법적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은폐되는 성폭력을 드러나게 하여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 목적

위기센터는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법적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은폐되는 성폭력을 드러나게 하여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직후 엄청난 쇼크로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 ② 의료적 지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가능한 한 피해자를 상담소로 오게 하거나, 병원에 동행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또한 외상을 치료하고 성병이나 임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③ 법률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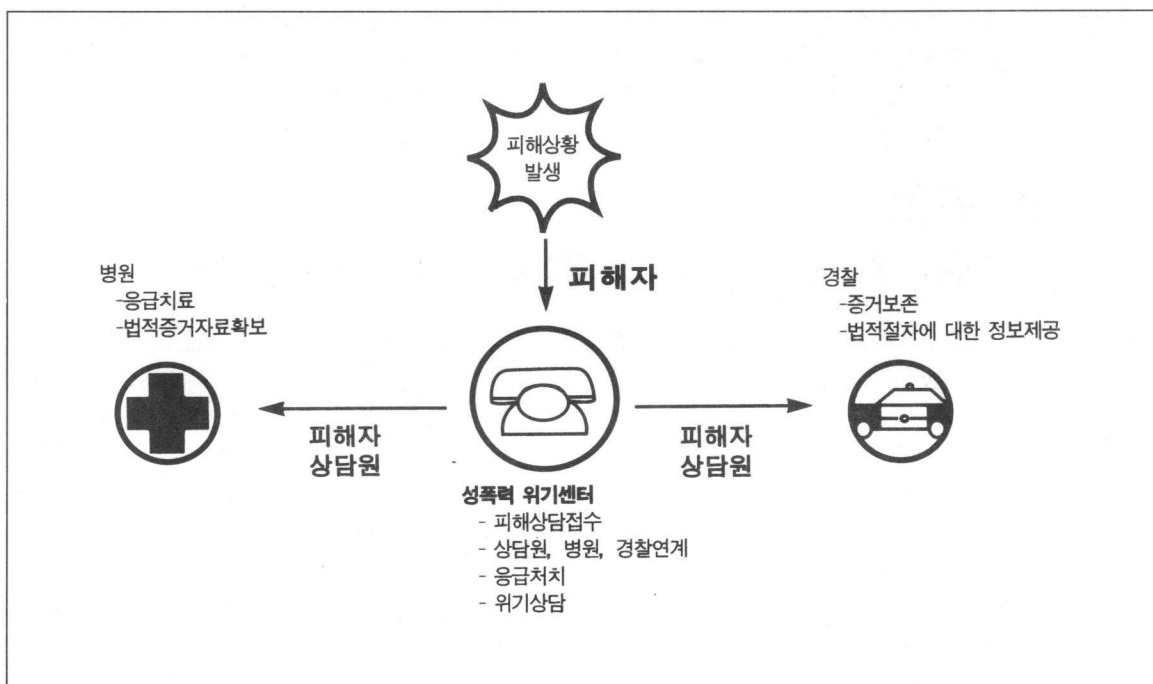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사실과 가해자 식별을 위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범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 기소, 재판의 전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지원한다.

## 2. 기능, 구성, 시간

### 1) 기능

#### ① 심리적 지원

24시간(일요일, 공휴일 제외)의 상담활동을 통해 성폭력 피



## 2)구성

위기센터는 자문위원, 상근자, 위기상담원, 지킴이, 야간 당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자문위원

심리, 의료, 법률적 자문을 한다.

산부인과, 법의학자, 신경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자문위는 증거채취를 위해 응급처치를 하며, 피해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돕는다.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위는 법적 정보제공외에 사건수사 등 필요시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 ② 상담원

위기상담을 담당한다.

지킴이의 연락을 받고 위기센터로 오게되면 피해직후 엄청난 쇼크로 혼란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위기상담을 한다. 피해자와 병원, 경찰 등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증거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야간 당직자

위기센터 밤근무를 책임진다.

지킴이들과 함께 위기센터를 지키게 되는데 지킴이와 상담원, 병원, 경찰 등의 연결을 총괄한다.

### ④ 지킴이

연계 역할을 담당한다.

지킴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원, 병원, 경찰을 연계하는 역

할을 한다. 피해자를 위기센터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며 피해 발생 사실을 상담원과 응급처치요원에게 연락한다. 상담원이 위기센터로 오기전에 피해자가 상담소에 먼저 도착하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 3)위기상담 시간

일요일과 공휴일만을 제외하고 24시간 위기상담을 받는다.

## 3.전망

본 상담소에서 연내에 실시될 위기센터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위기센터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위기센터의 형태를 갖추어 갈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연내에 실시될 위기센터는 국내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기능이다. 외국에서는 지역마다 강간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가 민간차원, 정부차원, 그리고 민간 정부 협력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세계 발생률 3위인 우리나라에서의

위기센터 운영은 늦은 감이 있으나,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본 상담소에서 위기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상담소의 여건상 24시간 연중무휴로 위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앞으로 위기센터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위기센터의 형태를 갖추어 갈 것이다.

나눔터 그림

반쪽이



# 기혼여성의 성

윤 양 현 (이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성은 성관계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성관계는 성교를 의미한다. 영어권에서는 성교(Sex, 보다 정확하게는 Sexual intercourse)와 성관계(Sexuality)가 언어로 구분되어 있듯이 그 의미도 다르다. 성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성을 포함한 관계인 이성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관계와 입맞춤이나 성교 등 모든 육체적 관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격적인 만남, 정신적인 만남에서 비로소 손을 잡거나 입맞춤만으로도 성감대가 온 몸에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오르가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는 행위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교 이전의 모든 과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성이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출산으로 인한 역할 변화로 직결된다.

그러나 성에 대해 드러난 자리에서 배워 본적이 없는 여성들은 입맞추고 있는 남자와 그 남자를 힘차게 밀어 주는 사회로부터 '성교만이 진짜 오르가즘을 제공해 주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얼굴에 대해선 그토록 애착을 갖고 열심히 가꾸면서

도 같은 신체의 일부인 성기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잘 알수록 순결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기에 대한 무관심에는 익숙해지게 된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갖게 되니 낯설기만한 성기가 마치 남편 것인양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성은 이렇게 출발한다.

미혼여성은 순결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라는 압력속에서 입맞춤으로 경험한 온 몸의 오르가즘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황홀이 성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성의 성심리를

배워 본적이 없고 성기중심적으로 훈련받은 남편의 일방적인 성태도와 만나면서 기혼여성의 성은 황홀했던 상상만큼이 추락한다. 성에 대해 무지하고 여자의 성욕은 죄악이라는 통념에 따라 남편을 일깨울 수 있는 기반은 사전에 없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남편의 일방적인 왕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성관계는 별개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귀찮다'는 것, 그래서 '밤이 무섭고' '징그럽다'며 웃음 아닌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그 귀찮은 성을 귀찮다고 내색할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열심인 남편의 성통념에 따르지 않으면 대상을 바꿀 위험성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혼여성들은 귀찮은 만큼 더욱 의무적으로 성관계에 임한다. 남편에 대한 자신의 성심리야 어떻게 상관없이 남편만의 성교를 위한 성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사랑을 재는 잣대라고 세뇌받았으므로. 이렇듯 성

기중심에서 파생된 통념들은 기혼여성의 실제 경험 속에 있어서 부부간의 올바른 성관계를 깨우치게 하기 보다는 기혼여성에게 연극적 테크닉을 연출하게 함으로써 기존통념을 유지시킨다.

이제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분석해야만 한다. 남성 위주의 사고에 길들여

**이제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분석해야만 한다.  
남성위주의 사고에 길들여져 온 기혼여성들이  
성통념의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성 스스로 잘못된 통념을  
스스로 깰 수 있는 힘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성은 삶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기중심문화에 익숙해진 남편부터 건져 내도록 해보자.**

져 온 기혼여성들이 성통념의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성 스스로 잘못된 통념을 스스로 깰 수 있는 힘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하나의 성 행위는 출산과 쾌락을 즐기는 낭만, 휴식, 그리고 대화를 위한 성으로서의 여러가지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성은 삶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기중심문화에 익숙해진 남편부터 건져 내도록 해보자.



# 첫날밤과 초코렛

김 영 명 (제3기 상담원)

성이란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몇가지 안되는 것중 하나였다. 그렇게 키워져 왔고 나 스스로가 관심 갖지 않으려 했고 얹매이지 않으려 애써왔다.

그러기에 대학때 채집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같은 과 남학생들과 함께 한 방이나 텐트에서 잤을때도 아무렇지 않았으며 억지로라도 남녀의 성차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싶지 않았다.

한번은 졸업논문을 쓸 때였는데 2명씩 조를 짜서 논문의 대상인 청딱따구리를 관찰하며 기록하는 과정이었다. 추첨을 하여 짝을 정했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복학하여 잘 모르는 얼굴이 새까만 남학생 형이 내 짝이 되었다. 밤 늦은 시간과 이른 새벽의 관찰을 위해 하루를 광릉에서 자게 되었는데 동네 불량배들 때문에 그 형과 같은 방에 있게 되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랫목에서 그냥 자버렸는데 그 형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벽에 눈을 떠 보니 역시 또 관찰을 위해 나가고 없었다. 나는 그 형이 왜 밤 늦게 또 새벽에 일찍 나가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속으로 “지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길래...”하고 투덜거렸다.

후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무슨 여자애가 잠을 그렇게 마음 폭놓고 잘자냐.”는 말을 들었을때에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러던 내가 같은 일을 하기에 서로를 동지라 부르던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 신혼여행때 우리는 바닷가의 숙소에 묵었다. 첫날밤 일을 무사히 치르고 난 후 남편과 나는 말없이 일어나 어

슴프레한 황금색의 스텐드 불빛에서 무엇인가를 막 찾았다. 어느 순간 함께 침대 시트위 깔개에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버렸다. 이튿날 아침 다음 일정을 위해 침구정리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깔개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다만 발치계에 어젯밤에 먹었던 초코렛 조각이 말라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참을 웃고 또 웃었고 그냥 잊어 버렸다. 한참이 지난후 TV를 남편과 보는데 어떤 의학상식 프로에서 처녀막은 어떤 충격이나 심한 운동, 고된 산행 등에 의해서도 파열된다는—전에 여러번 들었지만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말을 듣고 우리는 그일을 정리된 사건으로 넘겨 버렸다. 이처럼 처음에 우리에게 성이란 어색하며 서투르고 무지한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혹은 잡지나 TV를 켜놓은 덕택으로 많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도 되었다.

지금의 나에게 성이란 미지의 곳을 함께 여행할 때 둘만의 경험을 기억하는 즐거움처럼 남편과 나만의 공통의 느낌이며 서로 공유하는 기쁨이 되었다.

중학생이 된 큰 딸이 공부하느라 밤 늦게까지 자지 않기 때문에 가끔 남편은 “오늘 애들 일찍 재우지.”한다. 그러면 나는 무슨 뜻인지 다 안다.

## 미리 보는 상담소

10월 19일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23일 지킴이 1차 면접  
28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에서 친고죄 공청회

11월 4일 지킴이 2차 모집  
6일 상담사례연구모임, 운영위원회  
위기센터 상담원 교육(법적대응방안)  
지킴이 2차 면접

11월 11일 『나눔터』 9호 발간  
12일~13일 위기센터 지킴이 교육  
19일 어린이성폭력 예방비디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세미나 / 시사회)  
19일~20일 위기센터 지킴이 교육 및 상담소 MT(1박2일)  
12월 6일 상담사례연구모임, 운영위원회  
위기센터 운영시작  
24일 상담소 가족 연말 잔치

# 여자가 뭐길래

우 애 령 (소설가)



이 보십시오. 내가 워낙 점잖은 사람입니다. 이런 데 뭘 따지려 올 사람이 아니라구요. 내 오죽 속이 뒤집혔으면 여길 다 왔겠습니까.

아니, 우리 딱 까놓고 말해 봅시다. 우리 부부는 오순도순 애들 둘 낳고 여태 별 까탈없이 잘 살아왔다 이겁니다. 우리 여편네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여성 학인가 뭔가를 듣기 전에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다구요. 아, 남편에게 귀염 담뱃받지, 돈 벌어 오라구 몰아 세우지도 않지, 다른 남편들처럼 내가 집을 비우고 돈을 딴 데 뿌리면서 제멋대로 놀아 난 것두 아니지, 대체 뭐가 문젠지니까?

아닌게 아니라 내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사모님들 모시구 다닐 기회도 많고 은근히 유혹을 받은 적이 없는 것두 아니지만 내가 내 돈 쓰구 오입한 적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예? 내가 가끔 한 눈을 팔았다구요? 거야 부동산두 소개하구 어쩌다 보니까 다 처자식들 맥여 살리기 위해 정 말 수청드는 기생처럼 눈 딱 감구 나를 희생한 적은 있시다. 길을 막구 물어봐요. 우리나라 남편 기준으루다 보면 내가 이래봐두 팔십 점은 훨씬 넘는 사람입니다. 구타 한 적이 있지 않느냐구요?

이보셔. 맥은 거 사랑 싸움이라는 것두 해 본 적이 없으슈? 구타라는 게 그 뭐냐. 그저 짐승 패듯이 미워서 어디가 뿌리지게 두드려 패는 거 아닙니까. 내 그런 적은 아닐 말루 한번두 없시다.

술집에 집에 돌아와 양알거리는 자기 여편네를 한 대 쥐어박았기루 그게 법에 어긋납니까, 이웃에 해꼬지가 됩니까?

뭐라구요? 그게 인간에 대해 모욕이 된다고요? 이런 쟁쟁할, 살다 보니 별 소릴 다 듣겠네. 한 대 두드린 다음에 한번 척 안구 몸을 풀어 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꿀물에 북어국에 대접이 보통이 아닌 마누라였다구요. 잘못이 있으면 가끔 맞을 때두 있지. 안 그렇습니까? 뭐라구요? 나는 잘못했을 때 마누라한테 맞아 본 적이 있느냐구요? 여보셔. 그걸 말이라구 하쇼?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유별한 법이야. 나두 아주 무식한 놈은 아니외다. 그 시체 말루 여성 해방이다 뭐다 하는 말두 못 들어 본 놈이 아니라 이 말 씀이야.

문제는 정말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 봐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외다. 마누라가 무슨 여성 교실이라던가 그런데를 다녀두 되겠느냐구 허락을 청할 때두 속 좁은 남편같으면 첫 마디에 안된다구 했을거요. 일주일에 한번만 낮에 가면 된다길래 그러라구 한게 화근이 되었지 뭐니까. 나야 요리두 가르치구, 옷 만들기도 가르치구 이런 쓸만한걸 가르치는 줄 알았지, 멀쩡한 마누라들을 모아 놓고 운동권 교육을 시키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운동권 교육이 아니라구요? 그럼 어쩌서 그 살갑던 마누라가 한주 두주

지나갈수록 사람 꼴이 달라지더니 눈에 독기가 서는겁니까? 내 아뵘싸 싶었지요. 그래 점잖게 시초에는 말루 타일렀습니다. 이제 그만 다니라구요. 그랬더니 이게 어딜 감히 눈을 똑바루 뜨구 그냥 다니구 싶다는 거예요. 나 참 사람 환장하겠더라구. 이럴 때 주먹이 안 올라가면 이상한 일이지. 자기가 뭐 노예가 아니라나. 아, 누가 저더러 노예했습니까?

아닌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노예라든나두 그렇지, 이왕이면 더 젊고 몸매도 쭉 빠진 걸로 노예를 삼지. 뭇 땀에 애들 둘이나 낳구 평퍼짐해져서 볼데도 없는 저를 노예루 데리고 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구요? 도대체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 뭐시기 그렇게 유식하기루 들

● 것 같으면 우리 남자들은 뭐 처자식의 노예가 아닌 줄 아쇼?  
알겠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구요? 이 마누라가 사흘 전에 집을 나가 안 들어 온다 이거요. 내가 외박을 하구 들어 왔다구 여편네가 하두 버릇없이 덤비길래 내가 좀 심하게 한대 쥐어 박았시다. 애들 보는 데서 때렸냐구요?

아, 그 땀 두 눈이 확 뒤집혀서 애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에두 없시다. 거기까진 좋다구요. 밤에 내가 지 몸을 더듬으려구 드니까 다른 때 같으면 말없이 안겨 오던게 손을 확 뿌리치더라 이겁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좀 사람 대접을 받고 살구 싶다나요. 내 이러니 기가 안 막히겠습니까? 아 그러기루 들면 난들 밖에 나가 그 돼먹지 않은 사모님들한테 고개를 굽신거리며 뭐 사람 취급 잘 받구 사는 줄 압니까? 그건 다른 문제라구요. 집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구? 그 비단에 개똥 썬거 같은 얘기 그만하구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마누라 빨리 내놓으슈.

내 들으니 뭐 맥들이 매맞는 여자들을 위해 집을 마련하구 어쩌구 한다는 데 거 웃기는 수작들 하지 말구 가정 파괴범으루다 고소하기 전에 빨리 우리 마누라 내

놓으라 이겁니다. 자는걸 깨워 일으켜서 또 때린건 명백히 내 잘못이랑요? 나, 이래서 여자들하구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 알아듣게 점잖게 나오면 제법 이치를 따지구 덤벼들어요. 자, 그런 일에 항의를 하려면 우리 마누라가 해야지 왜 당신들이 나서서들 까불구 야단이야? 빨리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우리 마누라 못 내놓겠어?

뭐라구? 이렇게 나오면 경찰을 부를 수 밖에 없다구? 하, 이거 머리에 털나구 첨 들어 보는 기막힌 소리네. 불려보슈. 그 사람들두 대한민국의 사나이라면 내 말을 알아들을 거요. 맥같이 답답한 여자들하구 이러구 저리구 하는 내가 글렀

지. 자, 나 여기 앉아서 기다릴 테니 빨리 불려요. 뭐라구? 전치 2주라구? 우리 마누라가요? 법으로두 걸리게 되어 있다구요? 우리 마누라는 십여년씩 살을 맞대구 살아온 남자를 법적으로 어찌구 할 그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아냐.

맞는게 처음이 아니지만 짹 소리 안하구 여태 잘 살아왔다 이거요. 왜 남의 평화로운 가정을 뒤흔들어 놓느냐구, 흔들어 놓길. 이러지 말구 내 딱 한 마디만 하리다. 어디 가면 남성학인가 그런 거 가르침니까, 예? 그런 데나 일러주슈. 쟈장, 이즈막엔 사는데 드럽구 힘들어서 나두 해방되구 싶다 이거야. 이거 어째서 이렇게 세상이 험해져서 먹물든 여자들

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을까.

여자가 뭐길래 우리 사내 대장부들이 이렇게 기를 못펴구 살아야 하느냐구. 아무튼 큰일 난 세상이야. 그러지 말구 여성학을 한 번 들어보라구? 이거 정말 누구 오장육부가 꼬여서 죽는 꼴 보구 싶으슈? 남자들두 결국 잘못된 생각의 피해자라구? 그래, 이제야 겨우 뉘우치구 쓸 말 한마디 나오는구만. 아무튼 긴 소리 할 것 없이 내 이따 다시 올 테니 우리 마누라 곁에 여기다 데려다 놓으슈. 좋은 말루다 할 때에. 정말 당신들 말마따나 인간적으로 놀자구요. 그럼 저녁에 오겠시다.

## 주부가 읽는 『성의 정치학』

박 춘 선 (제2기 상담원)

나는 여자니까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나 자신을 비교적 씩씩하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상담원 활동을 하면서 덜 깐 사고방식이 망치질을 당하느라 나의 서른아홉과 마흔이 무척 고통스러웠다. 너무도 속 안찬 내가 갑갑해서, 또 부부관계에서도 너무 뻔히 보이는 것이 생겨서 서로의 어리광을 너그럽게 받아주기 어려워졌다. 남편에게도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나의 문제제기는 남편에게 저항감을 주었다.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이혼이라는 단어도 튀어 나오는 심각한 부부 싸움의 긴 여정을 겪었다. 양보를 통한 서로의 애정 확인이라는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나도 서로가 몹시 힘들었다.

세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모르는 게 약이 되어서 또는 못본척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도 아직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짐만 될 뿐더러 여자로서의 나의 삶을 생각할 때 오히려 진보다 움츠러든다.

그러나 '인식'을 통해 나의 현실을 알고나니 몇 모르던 객기가 사라졌다. 더불어 남성 중심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다 보니 주부로서 내가 하는 집안 일들에 관해서도 가정 관리자로서의 직업의식이 생겨났다. 결국 가사노동에 당당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단순하기만 하던 가사일도 덜 지루하게 느껴졌다. 또 남편에 대해서도 가장으로서 당연히 돈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 세상이 내린 천직과 애정이란 허울로 그를 내 삶의 방편으로 도구화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

상담을 하면서 세상 사람의 반씩을 채우고 있는 남성과 여성

의 이야기를 담고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미래의 상을 제시한 책들을 주로 만난다.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도 그런 책중의 한 권이다. 케이트 밀레트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우열이 생긴 역사적 원인을 서술한 후, 근현대의 구미 문학 작품을 통해 문화 비평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성이 지배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성폭력이야말로 권력 관계라는 저자의 분석에는 공감했지만, 남녀 양성의 관계를 식민통치자와 식민지로 가름한 논리를 대하며 의식의 혼란이 왔고, 인류와 인간의 삶이 서글퍼졌다. 다시 한번 여성인 나의 삶과 내가 가장 절실하게 부딪히는 남자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게 조화되어 살아나가야 함을 알고 있는 비범한 여자 케이트 밀레트는 『성의 정치학』에서 퇴적암처럼 눌러 쌓인 여성 억압의 누대의 문제들을 들추어 냄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여성들이 개인의 무수한 슬픈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이 진실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찾았는지 역사의 사실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그녀는 현시점에서 여성들을 향해 자신에게 단단히 꽂 잠긴 문들을 열기 위해서는 고난과 투쟁을 동반한 용기야말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삶에서 남성은 반대편에만 서 있는 존재일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을 올곧게 세우는 칼날처럼 매서운 용기와 더불어 사랑을 가꾸기 위한 인내와 지혜도 더욱 소중한 것이다. 결국 나나 남편이나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그 소중함이 순수하게 인정되는 관계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시급하다

최 호 곤 (신창중학교 교사)

알고 지내는 선생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가 맡고 있는 학급의 남학생 둘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자기 학급의 학생이 그런 흉폭한 짓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는 생전 듣지 않던 매를 들어서 남학생들을 호되게 꾸짖었고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 상담을 하며 지도하려 애썼으며, 피해 여학생도 자주 만나 정신적 상처를 함께 치유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인 남학생들이 예상했던 만큼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인 여학생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며 스스럼 없이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종종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례로 퇴폐적이고 무절제한 사회의 성문화와 거의 무지에 가까운 학교 성교육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화되어가고 영화, TV, 비디오, 출판물 등 온갖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 넘치고 있는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이나 생물 시간에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나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 대한 학습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전부이다. 간혹 1년에 한두번씩 양호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아이들은 긴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만나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싹트는 사랑과 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또한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상품화된 성, 왜곡된 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문제의식을 느낀 교사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도하려 애쓰더라도 워낙 연구 성과나 축적된 사례가 없어서 애를 먹는 데다가 성이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고루한 시각들에 주눅 들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성이란 소중한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고 신중한 선택과 책임지는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등 관련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성교육 자료의 개발, 정규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시키는 문제, 전문적 연구와 인력 개발 등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한 시급하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성범죄 발생 통계와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성범죄 연령층을 생각한다면 학교 성교육에 대해 더 이상 무대책일 수는 없다. 제도적 뒷받침,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개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과감한 의식 전환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 나눔터 알림판

###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규후원회원〉

구길자, 김민지, 김영아, 김효진, 손정원, 양내청, 원재동, 정종근

#### 〈기부금 내 주신 분〉

강홍준, 김강자, 문국진, 손덕수, 이종복, 최문경

#### 〈물품 기증해 주신 분〉

강옥희-거울, 노주희-진공청소기, 노희완-가스난로, 류재경-전화기, 박수남-침대덮개, 이계중-침대, 이종임-이불, 임순영-응급처치대·에어콘·소파,

장영복-전기프라이팬, 정경자-커튼, 정화순-식탁, 최영애-팬히터, 최혜선-카페트

#### 〈책 기증해 주신 분〉

김정희

#### 〈책 기증해 주신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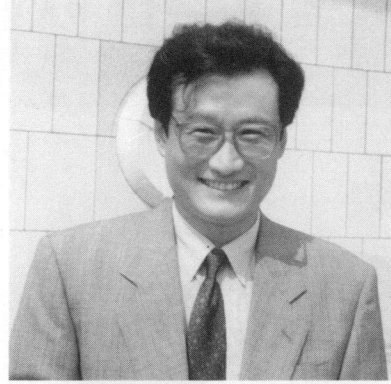
내일을 여는 책, 도서출판 공간, 대화출판사, 도서출판 명경, 성현출판사, 진수출판사

####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후원해 주신 분〉

윤애리(신경정신과 전문의)  
임성희(코오롱저스트 의상디자이너)  
임윤수(서울렌트카 대표)



손 숙 (본 상담소 자문위원 · 성폭력위기센터 명예지킴이)



문 성 군 (방송인 · 성폭력위기센터 명예지킴이)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의 손숙입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출발선을 긋는 첫마디이다. ‘여성시대’를 진행하면서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상담소와의 인연인 그는 미미하나마 여성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본 상담소의 홍보출판 자문위원인 그는 “남녀평등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기는 하나 아직은 흉내일 뿐이고,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또한 성폭력은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며, 성폭력 당한 여성은 일생을 망쳤다는 의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더우기 “남녀차별 문제는 어떤부분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의식이 더 쳐진 부분도 있어서 여성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남성과 힘을 합해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생 연극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연극과 함께 할 그는 1년간의 장기공연 ‘신의 아그네스’를 4월에 마감하고 앞으로는 ‘메카로 가는 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3번째 수필집 ‘울며 웃으며 함께하기’가 출판되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명예 지킴이의 위촉 소감에 민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 잘 해 왔으니 앞으로도 피해여성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말을 남겼다.

“평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큰 문제에 비하면 소극적이란 느낌이 드나 명예지킴이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반갑게 받아 들였습니다.”라고 본 상담소 위기센터 명예지킴이로 위촉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 문성근’. 이처럼 연상될 정도로 지적이고 예리한 표정과 밀도있는 진행으로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은 진관 사건’을 다루면서 본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된 그는 성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아직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군사문화로 인해 소중한 인간관계를 쉽게 폭력적으로 이해하는 면이 다분하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부족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간존중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여성의 각성과 남성의 반성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특히 여성전담 수사부가 생겨 수치심 없이 신고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완도, 진도, 자개도를 두루 다니며 촬영한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만나 볼 수 있으며, 11월 중순부터는 또다른 영화 ‘세상 밖으로’를 계획 중이라 한다.

## 알립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TV, 비디오, 자동차 등의 물품을 기증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기센터 응급처치실을 꾸며 주셨습니다

박금자(본 상담소 자문위원,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용 처치대, 자외선 소독기,  
응급처치용 의료기구 일절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02) 529-4271~3



**유한국 성폭력 상담소**  
02) 529-4271~3  
법률·의료·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전화상담 :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면접상담 : 화·목, 오후 2시 - 5시
- 서신상담

##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 담 원** :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사무지원활동**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위기센터지킴이** : 위기센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물 품 기 증** :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 원 회 원** :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조흥은행: 308-01-133092	성폭력 상담소
한일은행: 015-040018-01-001	성폭력 상담소

###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